

인천 AG보다 10배 비싼 U대회 선수촌 사용료

재건축조합 "11개월 사용·리모델링 비용 360억 달라"

인천 35억·대구 36억 수준... 광주시 "터무니 없다" 난색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를 9개월여를 앞둔 광주시가 선수촌 사용료를 놓고 재건축 조합측과 이견을 보이면서 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조합측에서는 선수촌 사용료로 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한 반면 광주시는 과도한 금액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7일 광주시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U대회 조직위) 등에 따르면 최근 U대회 선수촌 재건축 조합측은 광주시에 선수촌 사용료와 리모델링 비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360억원 안팎이 적절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국제 대회 중 최초로 도심 재건축 방식으로 짓고 있는 U대회 선수촌은 총 35개동(3726세대·지상15~33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되면서 6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선수촌은 대회 시작전·후인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사용하게 되며, 이후 리모델링 등을 거쳐 선수촌을 분양받은 주민들이 입주하게 된다.

하지만 조합측은 내년 3월이면 공사가

완료되는 만큼 리모델링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는 2016년 1월까지 최소 11개월치의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요구하는 사용료가 과도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인천 아시아게임 선수촌의 사용료는 35억원, 지난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와 2003년 대구하계U대회 사용료는 각 11억2000만원과 36억원 수준이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한 아파트 조합측이 이미 2016년 입주를 감안하고 선수촌 유치에 나선만큼 사용 기간에 대한 사용료만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는 리모델링 기간이 6개월이나 소요된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시에서 선수촌 유치를 위해 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한 만큼 선수촌 이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다"면서 "사공사를 포함한 조합측과 원만한 협상을 통해 시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사용료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분양 물량에 대해 보증채무를 지는 전후후무한 재정적 특혜와 융적용 향상 등의 갖은 행정 특혜에도 시공사와 조합이 수백억에 달하는 임대사용료를 청구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문순태 칼럼

화순 이서적벽이 42년 만에 개방된다고 한다. 윤정현 광주시장이 화순군민들의 오랜 숙원을 받아들여, 전용버스를 이용 주 3회 개방하기로 했단다. 10월 23일 윤정현 시장과 구충근 화순군수가 적벽 현장에 참석, 개방행사와 함께 적벽제가 열린다고 한다.

오, 불역재(不亦快哉)라, 나는 자신도 모르게 환호했다. 실로 64년 만에 화순적벽을 다시 볼 수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내가 화순적벽을 마지막 본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1950년 봄소풍이었다. 학교에서 4km 남짓 되는 들길을 걸어 보산리 적벽에 도착한 우리들은 오래된 느티나무 밑에 오뎅을 끓여놓고 도시락을 꺼먹은 다음, 승선비 5원을 주고 배를 탔다.

긴 대나무 장대로 강바닥을 짚어가며 움직이는, 판자 쪽배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적벽 밑으로 한 바퀴 돌았다. 턱 끝을 바짝 쳐들고 깎아지른 듯한 바위를 올려다보면 뒷목이 땅겨왔다.

강을 한 바퀴 돌고 나서서 적벽의 가파른 바위 길을 타고 한산사(寒山寺)까지 기어 올라가 부처님께 소원을

도담삼봉에 비길 바가 아니었다. 이곳에 담을 막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다면 엄청난 관광상품이 되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얼마 전부터 화순 사람들은 적벽을 되살릴 수 없다며 개방이라도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화순적벽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신재 최산두(齋 崔山斗)가 1520년 기묘사화로 동북에 유배와서 아름다운 경관에 반하고 그 이름을 적벽이라고 이름 붙인 후부터였다.

광양 출신인 최산두가 동북으로 유배를 오자 송순(宋純), 김인후(金麟厚), 유성춘(柳成春·미암 유희춘의 형), 임억령(林億齡), 김윤제(金允弼) 등이 지역 선비들이 앞을 다투어 동북으로 모여들었다.

이들 호남사림의 학맥을 형성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최산두가 13년 동안 동북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김인후와 유희춘 등 많은 호남 선비들은 최산두의 배소로 찾아가 글공부를 하고 시를 지었다.

나는 생소지 우리 집에서 가까운 물엄적벽(勿染赤壁)에 자주 간다. 속세에 오염되지 않은 적벽이라, 그 이름

화순적벽 개방 환영한다

별고 시원한 약수를 한 바가지씩 들이켰다. 한산사 주변에는 가문동굴과 폭포가 있었다.

그 무렵 교통이 좋지 않았는데도 전국 각지에서 화순적벽 구경을 왔다. 특히 매년 4월 초파일과 추석날 밤의 낙화놀이(낙화놀이)는 유명했으며 이를 보기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낙화놀이는 여남은 명의 장정들이 지계에 꽃물을 피울 불쏘시개를 지고 바위 틈새로 난 바윗길을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 불덩이를 강물로 던진다.

검은 하늘에서 꽃불이 빙글빙글 돌며 날리다가 강물에 잠기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검은 하늘에서 꽃불이 빙글빙글 돌며 날리다가 강물에 잠기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이 얼마나 탈속정정한가. 이곳에는 종종 때 구례군수를 지낸 송정순(宋庭純)이 1566년에 건립한 물엄정이 있다. 정지에는 김인후, 이식(李式), 권필(權黼), 김창협(金昌協), 김창흥(金昌興) 등이 이곳의 아름다운 절경을 노래한 시액(詩額) 23점이 걸려 있어 옛 선비들의 시심을 엿볼 수가 있다.

다산 정약용은 물엄정이 세워진 후에 이곳에 왔다. 그의 아버지 정재원(丁載源)이 1778년 화순현감으로 부임했을 때, 둘째 형 정약전과 함께 화순 만연사 소속 암자 동림사(東林寺)에서 글을 읽었다. 그 때 다산은 물엄정에 와서 '유적벽정자'라는 시를 썼다.

/해맑은 가을 모래 오솔길이 뻗었는데/ 동문의 푸른 산은 구름이 피어날 듯/ 새벽녘 시냇물엔 연지빛 잠겨 있고/ 깨끗한 돌바탕은 비단무늬 흔들린다/ 수령의 한가한 놀이 누가 흥취를 즐기나/ 시골사람 무리지어 밭갈고 낚시 하네/ 사랑스럽다 고운 산수 외친 곳에 자리잡아/ 명성 흘러 세상에 드러나지 않나도요/

다산의 나이 17세였다. 그 나이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소설가



시민 목소리 대변 '광주공동체회의' 출범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의 주요 정책과 현안 등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시민대표 514명으로 구성된 '광주공동체시민회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 관련기사 14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산구·곡성·진도·영암, 창조지역사업 신규 선정

지발위, 전국 21개 지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7일 창조경제 구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창조지역사업'과 관련, 2015년 신규 지원대상 사업 21개를 선정·발표했다. 이 중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광주 광산구, 곡성, 진도, 영암 등의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지역위는 "선정된 21개 사업에 대해 3개년에 걸쳐 96억원(2015년 43억, 2016년 34억, 2017년 19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사업에 포함된 광주 광산구의 '다시 쓰는 농촌, 일상·경험·마을을 더하는 더하기 지구'는 역사공간조·작은채방·꼬

마농부상상학교·들녘다방 등을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도군의 '전통민속 상·장례 문화 신커뮤니티 만들기' 사업은 진도 전통의 상·장례 문화를 복원하고 주민의 생활문화로 정착해 훼손된 지역사회문화를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구상된 것이다.

또 곡성군의 '곡성·심정 스토리 공감행복누리' 사업은 심경가 배우기, 주민극단 공연, 판소리 명가 심터 조성, 콘텐트 발굴 등을, 영암군의 '자연을 살리는 체험학교 - 선애(仙愛) 마을' 사업은 생태문화 체험, 디자인(퍼머컬처) 컨설팅, 빚물 홍보관 운영 등을 각각 사업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저비용항공사 티웨이, 내달부터 무안~제주 취항

매일 운항... 내년 4월 중·일도

국내 저비용항공사인 (주)티웨이항공이 11월1일부터 무안~제주노선을 본격 취항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7일 오후 무안공항에서 (주)티웨이항공과 공동으로 무안공항 취항 및 중국관광객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시·도가 지난 1일 무안공항 활성화 등 14개 상생협력안 추진을 위해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뒤 이어진 성과다.

(주)티웨이항공이 무안공항에 국제·국내노선을 취항하기로 하면서 무안공항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받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11월1일부터 정기노선으로 무안~제주를 매일 운항하고 내달 4월부터 주 3~4회 무안~천진, 무안~오사카 등 중국과 일본의 주요도시를 오간다. 또 중국 20개 도시를 전세기 300~400회 정도 운항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이번 티웨이항공 무안공항 취항을 계기로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해외 현지 여행사와 공동으로 저비용 항공사 주도의 항공산업 성장을 위한 마케팅활동, 광주·전남 고품격 여행상품 운영을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 등 성공적인 연차적 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비엔날레공원에서 누리는 분양같은 임대아파트

용봉동 도나우타운

전용면적 57㎡ 228세대

- 입주 전 베이커리아웃 실시
- 주방·욕실 천장에 매립형 방습시스템 설치
- 건식 욕실, 환풍기 타이머스위치 설치
- 1층 필티 구조
- 애완견 등 화장실 전용 출입문 설치
- 인방 블랙아일랜드 설치
- 주출입구 차량통제 시스템
- 전세대 확장형
- 전세대 LED조명 설치
- 출오토시스템

용봉동 도나우타운 입점 <전도> <용봉C> <용봉D> <용봉E> <용봉F> <용봉G> <용봉H> <용봉I> <용봉J> <용봉K> <용봉L> <용봉M> <용봉N> <용봉O> <용봉P> <용봉Q> <용봉R> <용봉S> <용봉T> <용봉U> <용봉V> <용봉W> <용봉X> <용봉Y> <용봉Z>

문의062 264-7789

전 세대 남향배치

김장훈 팬사인회 10월17일 OPEN